인터넷 포교와 불교계 전산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와 인터넷'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이 25일 법련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불교와 인터넷'을 발표한 이종완씨(LG 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는 "불교는 인터넷 포교에 있어 타종교에 뒤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금이라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이버 사원 건축 불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백여 교구청-본당-주요기관을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묶어 9월까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회행정과 신자관리를 공유키로 한 것과 비교할 때, 불교계의 전산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이씨는 "세계 종교인들이 '가상공간'일 뿐인 인터넷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불교계도 주목해야 한다"며 "부처님을 절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실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

◇호주 BuddhaNet 홈페이지.

◇15일 개설된 송광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보조사상硏 '불교와 인터넷' 세미나

"사이버법당 건립 불사 시급" 이종완씨

"대장경 전산화 교학발전 촉매" 김종명씨

이씨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엔진에 링크된 종교사이트가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반증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개신교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관련 사이트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네티즌들이 즐겨찾는 검색엔진 '야후(Yahoo)'의 경우, 8백13개의 개신교 사이트가 존재하는 반면 불교는 48개에 불과하다. 이같은 절대적 열세는 국내 사이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한국교회 홈페이지 사이트가 20여개에 이르는 반면 사찰 홈페이지 개수는 7개에 그치고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해 설득력이 취약한 불교계는 '포교'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인문학적 중요성'을 발표한 김종명씨(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는 "〈고려대장경〉 전산화는 동아시아 불교학 연구 및 인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도 고전사상 연구와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벳 및 몽고의 문화사 이해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했으나 〈신수대장경〉에 누락돼 있는 불전들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 전산화가 동아시아의 불교학과 인문학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분석했다. 그 중요성을 △불교철학 △종교학 △문헌학 △문화학·언어학·문학연구에 대한 기여로 분석한 김씨는 "그러나 인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와 더불어 이러한 불전들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완성과 더불어 "한글 〈고려대장경〉과 그 이후의 불교전적,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등의 전산화와 핵심적 목표인 교정작업, 표점작업, 검색엔진의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국내 불교 웹사이트

분류	이름	웹주소(http://…)	내용
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 인터넷 법계	www.buddhapia.com indra.indrunet.net/	불교관련 종합정보 경전, 선의세계 등
도우미 사이트	바바니	www.bhavani.com	불교홈페이지 제작대행
사이버 사찰	조계종 총무원 직지사 통도사 송광사 법주사 한마음선원 일승종 법운사 천태종 삼광사	www.buddhism.or.kr users.unitel.co.kr/~bud0891 net-in.co.kr/sovin/index.html temple.buddhism.or.kr/sungkwang www.pubjusa.or.kr www.seon.buddhapia.co.kr www.cybertemple.org www.samkwangsa.org	한국의 사찰 소개 창건 설화 등 소개 국가지정 문화재 등 역대고승, 국사전 등 속리산관광안내 등 법회안내, 큰스님 설법등 세계불교사이트 소개 '아나바다' 운동 등
학술·연구·수행기관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학교 조계종 수선회 인도철학회	members.iworld.net/hedevin/ www.dongguk.ac.kr/dgu.html zen.or.kr bora.dacom.co.kr/~jangsu/ksipmain.htm	해인사 소개, 경전열람 서울·경주 캠퍼스 소개 참선관련 각종 정보 인도철학 논문소개
신행·단체	맑고향기롭게 어린이지도자연합회	buddhapia.com/mem/clean/cl-main.html www.chollian.net/~bulkook	활동내역 소개 어린이 포교자료 소개
불교문화재·문화	부처님의 땅 겨레의 땅 경주 신라문화진흥원 경주넷 경주관광정보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상북도(경주)	bora.dacom.co.kr/~jhsl dongguk.ac.kr/~travel/ www.kyongju.net www.donghaenet.co.kr www.culturexpo.or.kr/ www.kyongbuktour.or.kr/kyongju/kb.html	경주남산 등 불교문화 경주관광 안내 경주관광 정보 불국사, 석굴암 소개 엑스포 안내 경주지역
사찰안내	아주대 불교학생회 김충호의 산사의 풍경소리 피안으로 가는 문	madang.ajou.ac.kr/~little/ bora.dacom.co.kr/~poemnkst/panya www.hallym.ac.kr/~sdjeong	백양사, 해인사 등 운문사 등 안내 춘천지역 사찰소개
기타	불교뉴스검색 목아박물관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인터넷으로만나는 불교	www.seon.buddhapia.com www.moka.or.kr/ blue.nowcom.co.kr/~nowbud members.iworld.net/hyemook/toc.htm	불교생활정보, 퀴즈 박물관학교 등 소개 불교공부방, 한국불교사 국가·학술·신행단체별 불교사이트

1면 '인터넷'서 이어짐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사이버 사찰형 △종합 불교정보 제공 사이트로 구분된다.

각 사찰 홈페이지는 공통적으로 사찰연혁과 소의경전, 주지스님 법문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이버 법당'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사찰마다의 특성을 살려 사찰 이미지 부각과 홍보,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직지사는 길목의 황악산문을 그대로 적용, 홈페이지를 열면 황악산문이 나타나도록 했다. 탁트인 전경으로 시작되는 통도사 홈페이지는 불보종찰답게 성보박물관과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둔사는 해남지역 일대의 섬과 차밭 등 주변 관광문화 안내도 곁들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송광사 홈페이지는 1백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 속에 승보종찰의 면모를 살린 역대고승 열람, 국제선원 등

사찰·단체마다 독창성 살려 제작

부설기관, 성보문화재, 조계총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문지원도 되고 있어 돋보인다. 5월초 시범 서비스되는 불국사 홈페이지는 석굴암 등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 소개 및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안내를 할 예정.

종합 불교정보 제공 사이트는 '부다피아' '인터넷법계' 등으로 각 종단 및 역사 경전 선 문화 학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부다피아'는 대둔사, 맑고 향기롭게, 소쩍새마을 등 교계 사찰과 단체의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하면서 교계 홈페이지 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인드라넷'을 운영하고 있는 혜묵스님(비백교학연구소장)과 〈한글아함경〉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전산화한 지월스님(대구 파계사), 용학스님(나우누리 승가학교시삽) 등은 컴퓨터 전문가로서 경전 전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룸비니를 찾아라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동산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부처님오신날을 뜻있게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 인포식(Infoseek)에서 검색어 'lumbini'를 입력하면 3백여개의 사이트를 소개받을 수 있다.

△'룸비니 웹페이지' '룸비니공원' '네팔여행' 등은 룸비니 동산의 전경 사진과 네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 이중 '룸비니 웹페이지'에서는 연못, 마야데비사원, 평화의 대탑 등 화질이 선명한 그래픽 사진 8장을 열람하고 로딩도 가능하다. '네팔여행' 사이트는 141,577㎢에 이르는 네팔 지도(Image Map)를 펼쳐놓고 볼만한 관광명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씨에틀타임즈' 96년2월5일자에 실린 부처님탄생지 발굴 기사도 읽을만 하다. 당시 부처님탄생지는 고고학계의 핫이슈였지만 이 발굴로 논쟁이 일단락짓게 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다국적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발굴단이 9개월동안 마야데비 사원의 16피트 지층에서 마야부인의 침실로 추정되는 방과 부처님의 유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발굴단은 이번 발굴에서 발견된 사원기념주(柱)에서 "아소카왕이 마야부인이 살던 곳을 찾아 마야데비 사원을 세웠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발굴지 근처에 연못으로 추측되는 곳도 찾았는데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목욕했던 곳으로 추정한다는 것. U.N은 이번 발굴에 힘입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를 '세계평화센터(The Center for world Peace)'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발굴현장도 생생한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3백여 사이트 룸비니동산에 초대

평화대탑 배경 소개 룸비니 연구논문도 제공

△'네팔신문' 97년10월2일자에는 룸비니 동산에 평화대탑이 세워진 배경이 나와있다. 당시 카트만두를 방문한 힌두교도(인도인) 관광객들이 룸비니 동산을 훼손시키려고 하자, 룸비니 소재 사찰의 스님들이 이 음모를 육탄으로 저지했다는 것이다. 평화대탑은 당시 사건을 계기로 세워졌다.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브리태니카'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룸비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온라인 D/B에는 네팔역사·인도불교·마야부인·성지순례 등 룸비니 관련 항목을 분류, 다양한 연구논문·사진·현황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유네스코' 사이트에서는 지난해 12월1일 유네스코가 룸비니 동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Welcome to Lumbini Web Pages http://www.star.ait.acth/~shyam/L2.html
△Lumbini Park http://www.andhratoday.com/tourism/lumbini.htm
△Nepal Introduction http://www.catmando.com/travel-bluebird/nepal.htm
△Nepal Review http://www.info-nepal.com/p-review/october97/
△Seattletimes http://www.seattletimes.com/
△Britannica http://www.eb.com/cgi-bin/
△Unesco http://www.unesco.org/

◇네팔 관광성이 제공하는 룸비니 동산 전경.

사고

현대불교 '부다피아'

LG '채널아이'에 불교정보서비스 '개통'

현대불교신문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3일부터 인터넷 PC통신망 LG인터넷 채널아이(Channel-i)와 공동으로 종합불교정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부다피아 불교정보'로 명명된 불교정보서비스는 현대불교신문에 게재되는 주요 기사와 그동안 본사가 개발, 축적해온 각종 불교자료를 일반인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합니다.

풍성한 불교정보 서비스

△법문마당에는 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큰스님들의 감로수 같은 법어와 수행한담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정보마당에는 불교계 소식, 불교의 역사 종단 사찰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3천여건의 다양한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여마당에는 신행생활 속의 의문을 직접 묻고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관련 행사와 봉사활동을 중계해 온라인상으로 신행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접속방법

1. 전용 브라우저인 체널뷰(Channel View)를 설치(02-369-9900), 실행시킨다.
2. ID입력창 설정버튼을 누른다.
3. LAN연결이나 전화접속(01434)중 한가지를 택한다.
4. 확인버튼을 누른다.
5. 이용자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6. 초기화면이 나타나면 '열린사회-종교' 메뉴를 누른후 '부다피아 불교정보'를 연다.

현대불교신문사

출판시대 TEL (02)3443-4307 FAX (02)3443-4308
Paramita Books
파라미타 북스는 불교 및 불교관련 지서 시리즈입니다
좋은 원고가 있으시거나 책을 출간하시려는 분은
출판시대 편집부(02-3443-43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歷代宗正法語集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

2천만 불교인 뿐만 아니라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역저. 현 종정이신 월하 스님을 비롯하여 성철,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 스님 등 역대 종정 법어집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 있어 처음 보이는 견성체후(見性體驗)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종정 스님의 법어(法語)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역대 종정 스님들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자성(自性)이 붕괴되는 충격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월하—마음 밖에 부처가 존재치 않으니
성철—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청담—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효봉—부처와 중생의 모양이 다르지 않으니
동산—부처 없는 곳을 향해 간다
서옹—선(禪)이란 참 나를 찾는 길
고암—부처님은 광경이요, 불변의 진리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편저/496면 값 15,000원 ●법보시용으로 주문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시대의 걸승(傑僧) 정휴 스님의 불교신문 인기칼럼 모음집
천수천안(千手天眼)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지음/200면/값 6,000원

되살아나는 붓다의 가르침
석가의 본심
석가(釋迦)의 출가(出家)와 득도(得道)의 과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써내려간 책. 팔정도(八正道)와 육바라밀다(六波羅蜜多), 공(空)의 사상, 연기법(緣起法) 등 석가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 써 불교에 밝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불(成佛) 가이드.
●오키와 류호 지음/김영숙 옮김/값 10,000원

불교TV화제의 프로그램 드디어 출간!
밀교강좌
한국불교와 밀교(密敎)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밀교 안내서. 밀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밀교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성불(成佛)에 대한 밀교의 견해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불교TV에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대한불교진각종 혜정 지음/값 12,000원

절망 뒤에도 희망은 있다
'역학의 대가'로 알려진 백운학 운명감정 40년 상담 에세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인생상담에 응한 사례를 엮은 책
●백운학 지음/256면/값 7,000원

너의 運命 얼굴에 있다
마의천(麻衣天) 선생의 얼굴빛 관상학!
제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이 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마의천 지음/400면/값 15,000원

T 3443-4307 F 3443-4308 출판시대